

跛龔生の 周易解釋에 對한 批判(二)

安浩相

氏의 이 主張이 周易思想의 唯物論的인 것을 論證 하였는가 아니하였는가를 알기 爲하여 우리는 氏의 主張을 根本的으로 批判하지 안하면 안 될 것이다. 氏가 『周易思想이 어찌하여 唯物論的이나 하면 그것은 무엇보담도 周易思想의 發生한 史實……即, 伏羲時代에 잇어서 仰하여 天象을 觀하며 俯하여 地理를 察하여 그를 圖로서 表示한 것이 周易의 起源이라』 하였다. 이로 본다면 周易은 伏羲氏가 仰觀 天象하고 俯察地理하여 作成한것, 即 物質的인 天象과 地理를 俯仰觀察해서 作成한 것인 故로 周易의 發生 原因은 物質에 잇으며 또 그로 좃아 周易은 唯物論的이라 하는 것이다. 勿論周易은 먼저 天象地理를 觀察한後 作成한 것임으로 周易의 發生原因이 物質에 잇는 것을 否定하지 안는다. 그것은 어지周易뿐이라! 四書三經뿐 아니, 全世界의 □□이 먼저 事物을 보고난 후에 또 그 自體가 가죽, 木片, 竹皮 종이 등으로 作成된 것임으로 그 發生 原因이 物質에 잇다 볼 수있다. 그러나 □□의 發生原因이 物質에 잇다 해서 □□□의 意味, 即 思想 까지가 반듯이 唯物論的이라 하는 것은(그런것도 잇지만)너무 □□學的이며, 哲學以前的 主張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어떤 무엇의 發生 原因이 A라 해서 그 自身(어떤무엇)좃아 A라 할 수 없다는 것은적어도 칸트 以後 哲學家에게 논이□이 普遍化된 常識이다.

칸트는 自己의 『純粹理性的 批判에서 모든議論이 『□□』 으로부터 『始作하며』 .(anfangcn) 또 『發生』 (eutgtehen)한다 해서 論議의 起源과 發生原因(entat□eh □grsache)을 經驗이라 하였다. 칸트가 비록 認識의 起源과 發生을 經驗이라 主張한다 해서 칸트□□論과 哲學을 經驗論的이라 하는 사람은 東西兩洋에서 一人도 發見 할 수 없고 도리어 칸트哲學은 (이하……원문해독 불가……)

落下法則을 發見하고 『뉴턴』은 『사과 떨어지는 것을 觀察하고 萬有引

力 법칙을 發見한 일을 自他가 熟知하는 바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할 것은 伏羲氏가 天象地理를 觀察하고 易理를 發見해서 易을 作成 하였으므로 易의 發生 原因이 物質인 것과 같이 沐浴하다가, 떡 먹다가, 落石들을 觀察하고 物理學과 數學을 作成한 故로 物理學과 數學의 發生 原因이 其亦 物質에 잇는 것은 論理的 必然性이다. 이와 같이 物質의 發生 原因으로부터 아르히메데스 原理와 피타고라스 定理와 갈릴네이의 落下 法則 뉴톤의 萬有引力 法則이 發見되였다 해서 그들의 數學과 物理學을 唯物論的이라 하기 보다 피타고라스 數學은 神秘的 要素를 多少包含하였으며 뉴톤은 物理的 神學을 主張하였는 까닭에 그들은 도로히 唯心論的이라는 評判을 듯케 된다.

우의 引用文에서 본 바 와같이 氏는 『伏羲時代에 잇어서 仰□俯察한 對象이 天地萬物이며, 또 水火木金土의 五種物』이 周易의 對象이 되는 까닭에 周易思想이 唯物論的이라고 主張하였다. 여기서 氏는 自身の生□이 너무 非情理的이며, 非論理的인 것을 □□시켰다고 아니할 수 없다. 周易의 觀察對象이 物質이라 해서 周易思想이 따라서 唯物論的이라 云□할 수 없다. 萬一 그러타 하면, 氏의 論法에 의하여 一切의 理學은 반듯이 唯心論的이라야만 될 것이다. 웨그러나하면 自然科學은 『物質』을, 또 心理學은 『心』을 觀察의 對象을 삼는 까닭이다. 그러나 事實은 그러하지 안어서 갈릴네오의 易學과 ○○의 唯□□學과 生理學, □□□의 物理學이 物理學이 物驗的이라는 말을 못지 못하고 또 아들너의 心理學은 唯心論的이 아니라 唯物論的인 것으로서 그 自身 □한 唯物論□인 것을 이미 아는 바이다.

다시 말할 것은 數學의 對象인 一切自然象와 (이하……원문해독불가……)의 現象과 또 『物』이라고 規定 하였지 마는 學的意味에 잇어서 周易의 對象은 宇宙의 現象이 아니라 이 現象의 本質이며, 또 『物』이 아니라 『物の 理』인 것이다. 自然科學家가 自然科學의 對象은 科學的 立場으로 본바 自然物이 아니라 自然物の 法制이라 해서 自然科學은 自然物の 法制를 對象삼는 故로 自然科學은 法制學(Gesetregwkssensdnobc)이라고 規定한 것을 본다면 우리는 여기서 周易의 對象이 其亦萬物の 『貿易 交易』 卽 現象이 아니라 이 貿易交易의 理致며 또 易學은 萬物の 易의 理의 學으로서 곧 易理學이다. 易學이 었찌, 易의 理致를 밝지 못하고 易學이 될 수 잇으며 또 易(事物交易)이 었찌 易의 理致의 前提가 없이 易할 수 잇으리오. 뿐만 아리나 易을 論하려 면 易의 理致를 認識해야 될 것이다. 萬一易의 『理』를 모르고 易을 論하는 것은 易을 모르고 易을 論하 는 것으로 易에 對한 거짓말 밖에 되지 안는 것이다. 이 易의 『理』가 없이는 易이 不可能하며 또 易의 理를 認識치 못하

고는 易을 알 수 없다는 것은 栗谷선생의 다음 句가 證明할줄 안다.